

세계적 경기부진...내년 광주 주력산업 수출 전망 '암울'

광주상의 조사, 수출기업 상반기 실적 전년비 악화됐다 42.7% 달해 수출 주력 산업 자동차·IT 등 악화 전망...원재료 가격 상승 등 원인

내년 광주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지역경제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국적인 수출 약세로 올해 수출실적 악화에 시달렸던 지역 기업들이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인해 내년 상반기 체감경기가 더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 기업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율과 원재료 가격의 안정화가 시급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광주상공회의소가 광주지역 103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상반기 수출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내년 상반기 체감경기가 전년 대비 '악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36.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32%로, 호전될 것이라고 본 기업은 31.1%였다. 이처럼 내년 수출 체감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은 전 세계적인 경기부진에 따른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환율 및 유가 변동 등 경기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광주의 주력 산업계의 수출전망이 어두웠다는 점이다.

업종별 응답을 보면 광주지역 수출 비중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IT·전자'와 '자동차(부품)' 업계를 비롯, '철강·금속가공' 업종은 내년도 상반기

수출여건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으로 봤다.

반면 '기계·금형', '화학·고무·플라스틱', '식품·농림수산' 등은 전년 동기보다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올해 상반기 실적 역시 전년 동기대비 '악화됐다'고 응답한 기업은 42.7%에 달했다. 이어 '호전됐다' (30.1%), '전년과 비슷했다' (27.2%) 순이었다.

지역 수출기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는 대내·외 리스크(복수응답)는 '원재료 가격 상승'이 71.8%에 달하는 등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수출국의 경기 부진' (41.7%), '환율 변동성 확대' (41.7%), '물류비용 상승' (39.8%),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활동 제한' (32.0%), '인건비 상승' (24.3%) 등도 우려로 꼽혔다.

이런 대내·외 리스크에 대해 수출업체들은 '기존 거래처 관리 강화' (61.2%)를 통해 주로 대응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생산효율화, 공장자동화 등 비용절감' (39.8%), '신형시장 개척 등 시장 다각화' (35.0%), '사업개편 및 투자 축소 등 긴축경영' (26.2%) 등을 꼽았다. 이밖에 11.7%는 '현재 별다른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지역 수출기업들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율 및 원재료가 안정' (62.1%)을 위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또 '수출기업 금융지원' (55.3%), '해외전시 및 마케팅 지원' (25.2%), '바이어발굴 및 신형시장 개척 지원' (23.3%), '해외 인증사업 지원' (14.6%), '기술개발(R&D) 지원 강화' (14.6%), '해외통관 애로 해소' (8.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편 수출업체들을 대상으로 FTA 관세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C/O) 활용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85.4%가 '원산지증명서 활용

및 활용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원산지증명서 미 활용'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4.6%를 차지했다.

FTA 원산지증명서 미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53.3%가 '당사에 FTA 활용 혜택이 크지 않아서'라고 답했으며, 이외에도 'FTA 활용 방법에 대해 잘 몰라서' (13.3%), 'FTA 활용을 위한 소명자료 작성 및 제출이 부담되어서' (6.7%) 등을 그 이유로 꼽았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기업들의 체감경기가 좀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역 기업들은 이에 별다른 대책 또한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 거래처 관리에 그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 거래처 발굴 및 시장개척 지원 등 수출기업들의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지원제도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월야농협·순천광양축협,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 전달

순천광양축협 7000억원 월야농협 1000억원 돌파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함평 월야농협과 순천광양축협을 방문해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달성탑은 지역 농·축협의 건전 경영과 내실 성장,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가 시행 중인 제도이다.

월야농협은 지난 2013년 예수금 500억원을 달성한 이후 9년 만에 1000억원을 돌파했다.

순천광양축협은 2018년 5000억원 수준이던 예수금 규모를 4년 만에 700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박서홍 전남지역본부장은 "시장금리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19 대응행 지속 등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서 두 조합은 전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값진 성과를 올렸다"고 축하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지역본부 박서홍 본부장(각 사진 왼쪽)이 월야농협(조합장 정상진)과 순천광양축협(조합장 이성기)을 찾아 '상호금융 예수금 달성탑'을 전달하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광주테크노파크,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위험 리스크 사전 예방 대책 수립

광주테크노파크는 안전보건분야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은 최고경영자, 모든 조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보건 활동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예측·예방해 조직의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공인 안전 기준이다.

그동안 광주테크노파크는 노사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해 조직 내 리스크를 평가하고 위험도가 높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대책을 수립해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목포세무서, 전남개발공사와 세무상담 협약

목포세무서(서장 노현탁·사진 왼쪽)는 지난 21일 전남개발공사와 세무상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세법에 따라 국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고, 신규 진출사업 등 세무와 관련된 사항을 목포세무서와 협의해 해결하는 소통창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노현탁 서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지역경제 활력회복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앞으로도 성실납세 문화조성을 위해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한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xer@



손보업계, 내년 자동차보험료 인하...“고물가 경제적 고통 분담 동참”

삼성화재·DB손해보험 등 대형 4사 인하율 2%대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도 자동차보험 보험료를 2%대 인하하기로 했다.

22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등 대형 4사는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하율을 2.0%로 정했다.

전날 KB손보와 현대해상이 2.0% 인하를 결정했고, 이날 DB손보가 같은 수준의 보험료 인하 방

침을 알렸다. 삼성화재도 이날 인하율을 2.0%로 확정했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보험료 2.5% 인하 방침을 결정했고, 롯데손해보험은 내년도 보험료를 2.9% 내리기로 해 보험업계에서 인하 폭이 가장 컸다.

한화손해보험도 2.0% 내리기로 해 보험료 인하에 동참했다.

보험업계는 고물가에 따른 고객의 경제적 고통 분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고 이것이 각사의 보험료 인하 결정으로 이어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거리두기 종료로 교통량이

늘어난 데다 보험료가 상승이 예상되지만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과 고금리·고물가를 고려해 고객들의 경제적 부담을 분담하고자 인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인하된 보험료는 대체로 내년 2월 말 이후 책임개시 계약부터 적용되며, 정확한 적용 시기는 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앞서 손보업계는 지난해 4~5월에도 자동차 보험료를 1.2~1.3% 인하한 바 있다. 거리두기에 따른 교통량 감소와 범규 강화에 따른 사고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된 점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연합뉴스

송정농협, 지역농협 최초 HUG 주택임차자금 보증지원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송정농협이 전국 지역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임차자금 보증지원을 한다고 22일 밝혔다.

송정농협과 ㈜유담건설, ㈜엔케이디앤씨는 이날 광주시 광산구 송정농협 본점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맺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임차자금보증'은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공사가 책

입지는 서민 주거 안정 보증 상품이다.

송정농협은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지역농협 가운데 처음으로 HUG 주택임차자금보증 상품을 취급하게 된다.

송정농협을 비롯한 7개 지역농협은 주상복합 임대아파트 '광양 중동 센텀 유블레스'에 대한 650억원 규모 주택임차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